

# 곡성 특방마켓 “내년 3월에 만나요”



곡성전변을 노략게 수놓았던 곡성 기차당특방마켓이 금년도 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재개장을 위한 휴식기에 들어간다.

기차당특방마켓은 2016년 5월 21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부근 곡성전변에 첫 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매일 한번씩 운영하다가 인기에 힘입어 올해부터 매일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2번씩 개최하며 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제공으로 지금까지 5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과 1억 7천만 원이 넘는 매출 달성도 이루었다.

봄바람 휘날리며 벚꽃 앞이 훑날리는 3월부터 가을낙엽과 함께 깊어진 초겨울 11월까지 기차당특방마켓은 매 장마다 색다른 재미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역의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한 어린이 특방마켓, 아나비디장터, 곡성고 한울고 곡성중 등 중·고등학교 동아리반 학생들의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재능기부 그리고 학생 셀러 참여를 통해 꿈과 끼를 나누는 문화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셀러들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SNS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방문객과 함께 장기자랑 등에 참여하며 정을 나누고 소통했다.

지난해 5월 21일 첫 시작...올해부터 2회 운영  
5만여명 넘는 방문객 · 1억7천만원 넘는 매출 달성

또 찾아가는 영화 상영, 청년참여 문화모임 개최 등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곡성군은 특방마켓을 성공적인 민간주도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작년 10월 특방마켓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과 함께 특방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다.

곡성 기차당특방마켓은 매일 참여신청을 받아 50~60팀의 셀러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공예품과 먹거리, 농산물가공품, 체험거리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셀러는 곡성 지역주민이 60%이고 광주·함양·장수·광양·구례·순천·전주 등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셀러도 40%가 넘는다.

매회 특방마켓 행사가 끝나면 셀러들이 함께 둘러앉아 잘된 점은 서로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가는 열린 토론으로 장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벤치마킹과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마켓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셀러들은 서로 단합하

고 스스로가 특방마켓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주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과 노력들이 모여 곡성 기차당특방마켓을 다른 곳과 차별화하여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곡성군은 이번 특방마켓 동절기 휴장을 맞아 곡성전변 이래까지 특방마켓을 확대 조성하고 방문객 쉽게, 함께 나누는 공간, 주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러 교육, 벤치마킹 추진으로 특방마켓의 품목 다양화, 차별화를 통해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특방마켓 거리 옆에 조성된 갤러리특방을 특방마켓협동조합이 운영자로 결정되면서 조만간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체험, 전시공간이자 문화공유의 장소로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곡성 기차당특방마켓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목포자유시장, 제철 수산물로 활성화 모색 철딱서니 수산물 축제 개최...다양한 이벤트 · 특별행사 열려

목포자유시장(상인회장 주상욱)이 제철 수산물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목포자유시장은 지난달 25일 '철딱서니 수산물 축제'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목포자유시장의 '제철 수산물'을 1시장 1특화 콘텐트로 육성하고 이를 고객에게 홍보해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철이 딱 선 제철수산물'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싱싱한 제철수산물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목포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목포맘들의 수다방'과 연계한 프리마켓도 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선보였다.

주요 고객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축제 당일 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할 영수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손톱을 손질해주는 네일케어가 특히 여성들의 인기를 얻었다.

이번 축제는 지난 10월 홍보대사 미스코트로 위촉된 '진이'와 사진

을 찍고 현장에서 인화해 주는 무료 사진 이벤트와 신규 메뉴 개발을 위한 시식회 등 매주 금·토요일 저녁 열리는 남진아시아당과도 연계해 열렸다.

시식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1차에 이은 2차 평가로서 신규 메뉴는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메뉴를 활용할 신규 매대 현장 접수도 진행된 가운데 신규 운영자에게는 개발된 레시피의 체계적 전수 및 교육 등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상욱 회장은 "목포자유시장이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공존하는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축제가 신규 방문객 유치는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다시 열린 '철딱서니 수산물 축제'는 수산물 할인행사, 프리마켓, 사진이벤트, 네일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특별행사로 목포MBC 라디오 '즐거움 오후2시'의 공개방송도 함께 진행돼 가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 서울 가락동경매시장서 영암농산물 홍보



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군에서 방문한 가락동시장 서울청과(주)는 우리나라 5대 청과중 으뜸가는 청과회사로 지난해 12월 27일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상호 신뢰 속에 지난해에는 78억원의 영암농산물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11월말 현재 무화과, 단감, 배, 토마토, 메론 등 과수 판매액은 71억원, 채소류는 6억원을 판매해 총 2.739톤에 약 77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전동평 군수는 "앞으로도 상호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산물 유통정보를 교환하고 영암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청과(주) 임

영암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을 방문해 영암 농산물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에 의하면 이번 판촉행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서육원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이재면 남주농협장, 심상자부반, 귀농귀촌회, 신북농협과 서울청과(주)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을 방문해 영암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서울청과(주) 임



영동농장이 주최한 소비자 체험행사서 버 타작 체험을 하고 있는 사진.

## 강진군 영동농장 6차산업 경진대회 '장관상'

강진군 신진면 소재한 영동농장이 지난 6일 2017년 6차 산업경진대회 평가에서농림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북 무주군에서 실시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유기농 해반 미국 수출과 농업인 체험농장 운영, 태극기 계양과 공영 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영동농장은 국내최대의 유기농 쌀 재배단지 53ha의 벼와 20ha의 겉보리가 유기재배 되고 있다. 국내

유기농인증뿐만 아니라 미국 농무성(USDA)과 일본 농림수산성(JAS)의 유기농 인증까지 획득한 영농법인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그린음악 쌀을 생산하고 있다.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 오경배 대표는 "농장 조성부터 친환경농업 실천이 성공하기 까지 고생은 많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기농단지로 조성되어 세계인이 찾고 인정하는 농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진=최재영 기자

## 해남군,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해남군은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위탁기관을 모집한다.

일자리 사업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일자리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될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파 사파견 사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된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18일까지이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일자리사업 유형 및 직무내용에 따라 읍·면사무소, 민간위탁 수행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해남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자리사업 유형별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해남군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